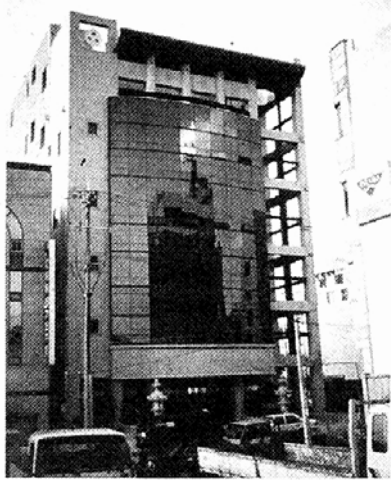


충북불교문화회관 24일 개관 중부권 사이버포교 시대 연다

3개 채널 인터넷 방송 개국 불교대·7개 연합단체 입주

첨단 사이버 시설을 갖춘 불교회관이 청주에 건립돼 중부권포교의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충북불교문화회관(원장 정일스님)은 24일 오후 3시 개관 및 축하법회와 공연, 불화전 등 문화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들어간다. 지하2층 지상6층 연건평 1358평 규모인 충북불교문화회관은 총예산 52억원을 들여 회관빌딩에 방송시설 및 40여대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첨단 사이버시설을 갖췄다. 이를 통해 불교대·불교문화센터·어린이집에 지역의 교계 행사내용을 실시간 인터넷 3개채널로 24시간 실황중계할 예정이어서 교계 최초의 인터넷방송을 하게 된다.

또 불교회관에는 65명 법당, 40명 시민선방, 2백평규모의 광명아트홀, 광명어린이집, 광명갤러리, 청주불교대학, 불교문화센터, 전산방송실, 컴퓨터실, 서점, 다원, 어린이 놀이터 등이 들어서 종합불교회관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5백석의 광명아트홀은 멀티뷰, 베타롬6대,



충북불교문화회관은 첨단시설을 갖춘 중부권포교의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스캔노명, 오디오, 프로젝터 등 일반방송용 공개홀과 맞먹는 시설로 녹화 및 현장 생중계가 가능토록 방송시설을 갖춰놓은 상태다. 회의실도

동시통역과 화상회의가 가능해 교계의 각종 회의와 다양한 학술행사가 열릴 수 있게 했다. 부설 광명시민선방은 이영일법사가 지도하며 참선수행과 참선수행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충북교수불자회(회장 성기서)가 운영하는 청주불교대학(학장 정일)의 불교학개론과 영어로 배우는 경전교실등의 강좌가 열린다.

불교문화센터(실장 이성훈)는 어린이와 성인 대상의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 종이접기, 동화구연, 실내장식, 풍물교실, 매직풍선등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이 개관과 동시에 개강할 예정이다.

또 교수불자회, 대불련, 대불칭, 파라미타, 충북비역불자연합회, 포교사단, 불교총연합회 등 7개 청주지역 불교연합단체가 입주할 계획이어서 지역 신행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추진위원장은 "2년전 정일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불사가 완성돼 지역불자들과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불교의 중심도량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사부대중이 하나되는 불교의 구심공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0431) 294-6193-99.

청주=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1945년 반일운동 결의로 전원 무기정학을 자청한 오산불교학교 4학년생과 담임교사(중앙), 주모자 현대법 학생(가운데쪽 오른쪽 네번째)이 한자리에 모였다. 원내는 제복자 김경원씨.

日軍입대 거부·독립운동 결의

20세기 불교 그 현장 그 인물 <6>

오산불교학교 반일운동

해방직전인 1945년 5월, 지금의 능인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오산불교학교에서 최고 학년인 4학년 정원이 반일(反日)사건으로 인해 무기정학을 자청한 일이 있다. 해방이 되어 이들은 무사했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묻혀 버린 사건이다.

1925년 경북 영천 은해사에 오산불교학교가 설립되었다. 동화사 은해사 기림사 고운사 김용사 등 경북의 5본산이 출자해 중학교과정으로 총독부의 인가를 얻어 세웠다. 한 학년의 정원이 25명으로 전국의 큰절에서 추천을 받아 입학할 수 있어 승적이 입학에 유리한 조건이 됐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복장은 한복차림으로 조석예절은 반드시 가사와 장삼을 입고 예절을 올렸다. 모든 학교생활이 사미생활 그대로였다.

1944년 들어 일본은 학생들까지 군에 동원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했다. 그해 여름방학 대구의 일본군 제24부대 학병탈출사건이 일어났다. 주동자는 동화사에 적을 두고 해화전전 재학중 징병된 권성훈씨로 결국 군위 인각사에서 체포되었다.

바로 이사람이 오산불교학교 반일사건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다. 그해 가을 오산불교학교 학생들은 공부보다 노력등원이 더 많았고, 저녁 기숙사에 돌아오면 자연히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3학년 반 일운동의 주동자인 현대법학생은 권성훈씨로부터 배웠다며 '항성 엠티' '창덕궁' '나그네설움' 등 당시 유행가를 가르쳤고 동기 학생들이 다 함께 배워 부르면서 나라는 설움과 한을 달랐다. 그

4학년 전원 체포 피해 스스로 무기정학 받아

다. 그해 가을 오산불교학교 학생들은 공부보다 노력등원이 더 많았고, 저녁 기숙사에 돌아오면 자연히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3학년 반 일운동의 주동자인 현대법학생은 권성훈씨로부터 배웠다며 '항성 엠티' '창덕궁' '나그네설움' 등 당시 유행가를 가르쳤고 동기 학생들이 다 함께 배워 부르면서 나라는 설움과 한을 달랐다. 그

그러다가 반일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된다. △일본군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다른 학교와 연대하여 연락하고 독립운동가들과 연락을 취한다. △영어공부를 중점적으로 하고 미군이 상륙하면 연합군에 협조한다. △배신자는 각오해야 한다 등이었다.

그런데 겨울방학이 가까워질 무렵 동기 배상도학생이 영전을 헌병보조원 하야시라는 일본인을 기숙사로 데리고 와 함께 하룻밤을 지냈다. 그의 숙명은 3학년 전체를 잡아 넣으면 헌병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 4학년이 된 1945년 4월 배상도학생은 징병1기로 일본부대에 입대했고, 반일운동 주동자 현대법학생은 동화사 아래 고향집에서 헌병대에 체포됐다. 이소식이 전해지면서 4학년 전원은 급히 모여 의논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전원이 체포되고 학교도 폐쇄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학교당국과도 타협해야 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 4학년 전원은 스스로 무기정학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사들은 겁이 질려 있었고 학교측은 전전긍긍했다. 다른 도리가 없어 무기정학을 하기로 하고 6월순종경 4학년들은 모두 학교를 떠났다. 그러다가 천만다행으로 8.15 해방을 맞았고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다.

1946년 오산불교학교는 대구시내로 이전해 학교명도 능인중학교로 바뀌었다. 따라서 무기정학을 자청했던 4학년전원은 능인중학교 1회 졸업생이 되었다. "해방이 됨으로써 우리들은 살아남아 교사 시인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타계한 학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건이 밝혀져 국민의 민족정기를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생을 교직에 봉직하고 정년 퇴임한 당시 은해사 출신으로 반일 4학년생이던 김경원씨(71세·용지서예화인장)는 지금도 회고하면 아찔해진다며 당시 사진을 제공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동화사강원 재개원

승가대 설립 신청...복지관·납골당 추진도

대구 동화사(주지 성덕)는 2000년 봄부터 강원을 재개원하여 도 제임성에 나서기로 했다. 동화사는 20일가지 조계종 교육원에 80명 정원의 동화사 승가대학 설립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12월경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숙사인 서별당과 심검당을 완공할 예정이다. 동화사 강원은 1915년 부설 불교광명학교로 운영되

1918년부터 1942년까지, 1960년부터 1989년까지 교육활동을 폈었다. 2000년을 맞는 종합불사계획을 밝힌 동화사는 한국불교연구원을 발족, 복지관운영, 납골당 건립, 장학회 설립, 통일약사여래불 회향, 사천왕문 사천왕상 범종조성, 영산전, 묘사신축 등 중창불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공주갑사 첫 개산대재

만등불사 예수재 봉행 월인석보 21권 간행

공주 갑사(주지 장곡)는 6.7일 사부대중 7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첫 개산대재를 열고 만등불사, 한국사찰문화 전국학술회의, 사찰사건전시회, 축하 열린한마당, 폐불제, 정대불사 및 생전에수재를 지냈다.<관려기사 4면>

특히 갑사는 첫 개산대재를 기념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갑사가

소장하고 있는 보물 582호 월인석보 제21권 영인본을 출간했다. 이와함께 열린 한국사찰문화 전국학술회의에서는 사재동교수(충남대)가 "한국사찰문화의 실상과 그 기능" 이강승교수(충남대)가 "갑사의 역사와 문화재" 김승호교수(동국대)가 "사찰구비전승의 불교적의미" 김진영 교수(우송대)가 "월인석보와 갑사장판 21권에 대하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공주=김원우 기자

특히 갑사는 첫 개산대재를 기념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갑사가

금수사 순국선열 55위 추모법회

2백여명 보살계 수지

부산 금수사(조실 법홍)는 10일 순국선열 55위 추모법회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 법홍스님을 비롯 4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계사 청합, 참회, 연비, 전계, 계점수여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사미계 10명, 보살계 40명을 비롯 2백여명이 보살계를 수지했다. 천미희 기자

법륜사 유치원 준공

17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 법륜

사 법륜유치원(원장 보혜)이 8일 확장 신축 준공법회를 가졌다. 유치원 3층 강당에서 열린 이날 준공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안양사 조실 성공스님을 비롯 학부모, 원생 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새롭게 신축된 법륜유치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484평 규모로 강당, 놀이방을 비롯 문수반, 가람반 등 7개반이 수업할 수 있는 교실을 두고 있다. 법륜유치원은 12월 1일부터 2000학년도 원아를 모집하고 불심을 근간으로 한 동심가꾸기에 주력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 법륜유치원(원장 보혜)이 8일 확장 신축 준공법회를 가졌다. 유치원 3층 강당에서 열린 이날 준공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안양사 조실 성공스님을 비롯 학부모, 원생 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새롭게 신축된 법륜유치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484평 규모로 강당, 놀이방을 비롯 문수반, 가람반 등 7개반이 수업할 수 있는 교실을 두고 있다. 법륜유치원은 12월 1일부터 2000학년도 원아를 모집하고 불심을 근간으로 한 동심가꾸기에 주력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경주 청소년음악회 열려

경주지역의 5대 종교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소년을 위한 작은 음악감상회'가 6일 경주예술극장에서 중·고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감상회는 동국대 경주캠퍼스국악과 박성진교수의 해설로 국악합주, 국악독주, 관소리 춘향가, 불교무용 '승무', 사물놀이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윤호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맑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위어드 김희균 협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016-228-2358

2000년 불교달력은 감로카렌다가 1등입니다

<p>동자승의 세계</p> <p>크기: 대·소</p>	<p>적멸보궁과 기도도량</p> <p>크기: 대·소</p>	<p>대 불(大佛)</p> <p>크기: 대·소</p>	<p>산사의 향기</p> <p>크기: 대·소</p>	<p>한국의 명찰</p> <p>크기: 대·소</p>	<p>한국의 석불</p> <p>크기: 대·소</p>	<p>살아있는 달마</p> <p>크기: 소</p>	<p>북한의 사찰</p> <p>크기: 소</p>
<p>불교전문문양의 미</p> <p>크기: 소</p>	<p>금강산의 사계</p> <p>크기: 소</p>	<p>나한도</p> <p>크기: 소</p>	<p>차량용 미니 달력</p> <p>크기: (11x18cm)</p>	<p>(사진:안장현) 대불, 산사의 향기, 한국의 석불, 적멸보궁과 기도도량, 한국의 명찰, 불교전문문양의 미는 한국불교사진 예술의 독보적인 안장현교수의 작품이다. 안교수는 월간 영상 편집장을 지낸바 있으며, 20여년간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사진에 담아왔다. 석불, 국립공원, 석굴암, 영경의 미소, 선의 세계 등의 사진작품집이 있으며, 현 한국 사진작가 협회회원 및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자문으로 있다.</p>			

365일 밖에 걸린 달력은 불교 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회에서는 불기 2544년 달력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 크 기: 대(30x31cm) 국6절 소(26x26.5cm) 사륙12절
- 매 수: 표지포함 13매
- 특수고급 제본(TW스프링)
- 주문부수: 100부이상(차량용 미니 달력 200부이상)